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70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코로나19를 통해 본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혐오

- 혐오 옳지 않지만 신천지에 분노

2020. 03. 25.

담당자 전해진 과장

전화 | 02-3014-0983

e-mail | hj.jun@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조사실무

오승호 부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구정태 대리

전화 | 02-3014-1040
e-mail | jtkoo@hrc.co.kr



기획조사 : 코로나19를 통해 본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혐오 - 혐오 옳지 않지만 신천지에 분노

- 코로나19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자극하며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뒤바꿔놓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과 급격한 일상의 변화는 개개인의 정서적 심리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나 중국인, 신천지 교단이나 교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이 여과 없이 표출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집단 혐오나 배척의 정서로 분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여론 속의 여론〉 조사 결과(2월 28일 ~ 3월 2일 전국 1,000명 조사)를 토대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인식 변화, 현 상황이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일부 완화되었고, 대통령과 정부 대응 평가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초종교 개학 연기에 78%가 찬성할 정도로 우려는 남아 있다. 또한 종식 예상 시점이 점차 늦춰지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급격한 감정의 변화도 확인되고 있다.
- 분노는 온라인 상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콘텐츠로 이어졌다. 한국리서치의 SNS 분석 모듈인 〈버즈 플라자 소셜 리스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2월 18일 이전까지는 중국을 타깃으로 한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었으나, 2월 18일 이후에는 ‘신천지’가 타깃인 콘텐츠가 증가했다. 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9%, ‘국내 확진자’ 대상으로 한 혐오를 들어봤다는 응답이 62%로 코로나19 관련 혐오의 표현은 주로 신천지 교인과 국내 확진자에게 집중되었다.
- 특히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적 언사를 정당화하는 응답이 높았다.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 내에서의 집단 감염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5%에 달했다. 식당 등에 신천지 교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어 행동이라는 응답은 74%, 유치원/학교 등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비율도 73%에 달했다. 사태 확산 책임에 대한 분노가 신천지에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코로나19 상황 인식 및 대응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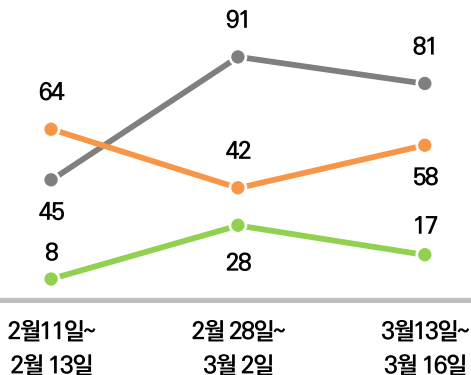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완화, 대통령과 정부대응 평가 개선되었지만 우려 여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험 인식을 보면 2월 둘째 주 1차 조사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자는 45% 수준에 그쳤지만, 신천지 교인들의 감염 확산 사태를 거치며 2월 넷째 주 2차 조사에서는 91%까지 상승했다. 3월 둘째 주 3차 조사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81%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이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3월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확진자 발생률이 유지/감소 추세를 보이고, 소규모 단위의 집단 감염으로 감염의 양상이 변화된 결과로 보인다. 내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직접적인 우려는 1차 조사에서는 8%에 그쳤으나 2차 조사에서는 28%로 올라 2주 사이에 3.5배나 커졌고, 3차 조사에서는 17%대로 떨어졌다. 대통령과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1차 조사 때에는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4%에 달했지만, 2차 조사 때에는 42%로 급락하였고, 3차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다시 58%까지 올랐다. 다만 초중고 개학 연기에 78%가 찬성할 정도로 우려는 남아 있다.

(단위 : %)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완화,
대통령과 정부대응 평가 개선

- 국내확산 상황이 심각하다
-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 대통령과 정부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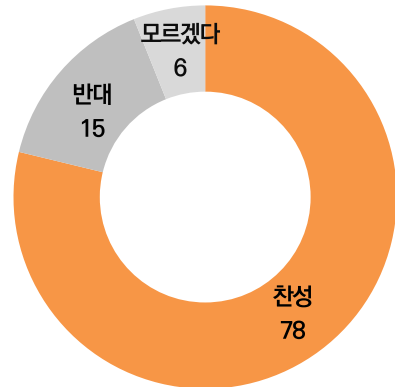
질문: 코로나19 국내 확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매우 긍정(매우 그렇다) + 긍정(그런 편이다)' 만 제시

표본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시기: 1차조사: 2020.02.11~02.13,
2차조사: 2020.02.28~03.02,
3차조사: 2020.03.13~03.16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찬성 78%,
확산 우려는 여전

질문: 교육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초중고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한차례 연기했다가 다시 23일로 연기했는데요, 현재 추가로 개학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비고: 찬성: 전국 초중고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
반대: 더 연기해서는 안된다

표본 수: 197명(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

조사시기: 2020.03.13~03.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1

코로나19 상황 인식 및 대응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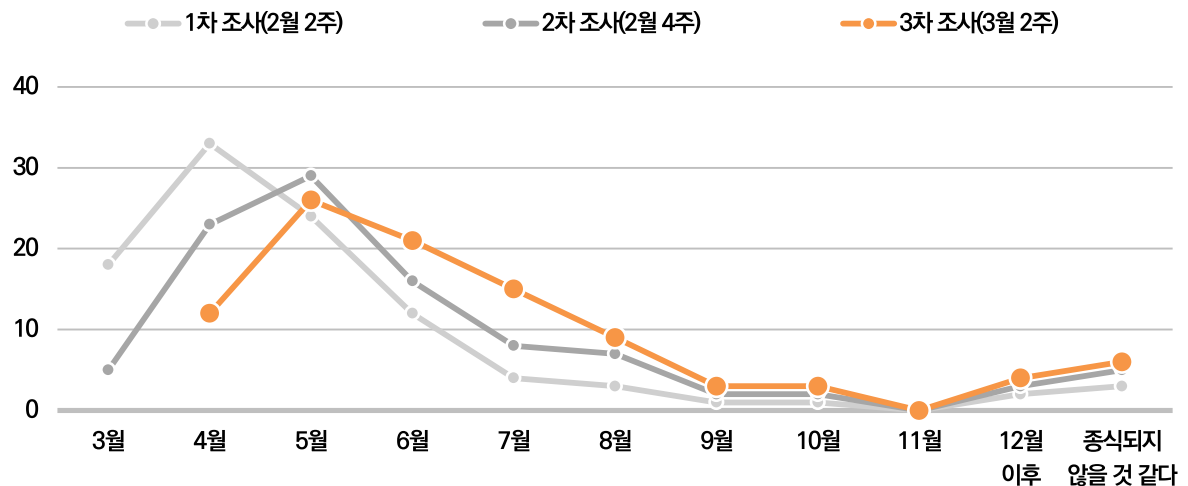
코로나19가 가져온 정서적 변동: 코로나19 장기화, 감정 조절 어려움 급증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가 점차 연기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급격한 감정의 변화도 확인되고 있다. 1차 조사에서는 '4월'이면 종식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3%였다면, 2차 조사에서는 4월~5월, 6월까지도 응답한 비율이 점차 늘어났으며, 3차 조사에서는 '7월'로 예상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조기 종식의 기대감이 좌절되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인 감정(걱정, 두려움, 슬픔, 분노, 우울 등)이 1차 조사 시점에 비교해 눈에 띄게 늘었다. 0점을 변화가 없는 일상적 상태라고 가정하고, 100점을 촉발된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1차 조사에서는 평균 41.2점이었고, 2차 조사에서는 58.0점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접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분노'를 느낀다는 응답은 1월 말에는 6.8%이었다면, 2월 말에는 21.6%로 3배나 증가하였다(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명순 연구팀).

(단위 : %)

코로나19 종식 예상 시기, 늦춰질 것이란 전망 증가

구분	사례수 (명)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후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	계
1차 조사 (2월 2주)	(1,000)	18	33	24	12	4	3	1	1	0	2	3	100
2차 조사 (2월 4주)	(1,000)	5	23	29	16	8	7	2	2	0	3	5	100
3차 조사 (3월 2주)	(1,000)	-	12	26	21	15	9	3	3	0	4	6	100



질문: 귀하께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언제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표본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시기: 1차조사: 2020.02.11~02.13, 2차조사: 2020.02.28~03.02,

3차조사: 2020.03.13~03.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1

코로나19 상황 인식 및 대응 평가

(단위 : 점)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인 감정, 1차 조사 시점에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



질문: 귀하의 정서와 감정 상태(걱정, 두려움, 슬픔, 분노, 우울 등)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전의 일상적 상태를 0점, 촉발된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를 100점이라고 하면 변화된 정도를 몇 점이나 줄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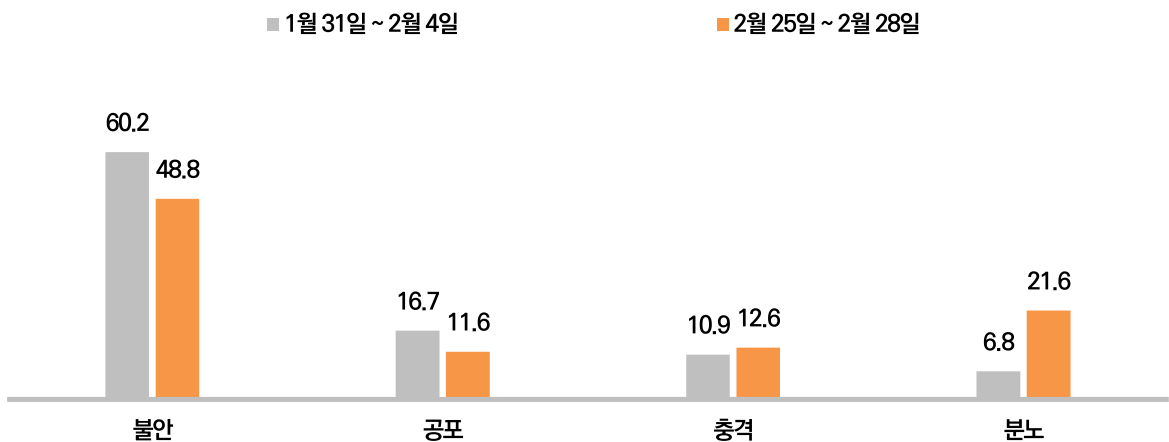
비고: 척도 10점 단위로 제시함. 0(변화 없음)---100(촉발된 감정이 극에 달함).

표본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시기: 1차조사: 2020.02.11~02.13, 2차조사: 2020.02.28~03.02

코로나19 뉴스를 접할 때의 감정, 분노 느낀다 3배 증가

(단위 : %)



질문: 코로나19 뉴스를 접할 때 떠오르는 감정

비고: 4순위까지만 제시함

1차조사: 2020.1.31~2.4, 2차조사: 2020.2.25~2.28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현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분노와 비난의 대상

SNS의 혐오, 실제 여론인가? 2월 중순부터 분노의 화살, 중국에서 신천지로 이전 “착한 짱개는 죽은 짱개밖에 없다더니...”, “신천지 바퀴벌레 종자들...”

분노는 온라인 상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콘텐츠로 이어졌다. 타깃은 중국에서 신천지로 옮겨왔다. 한국리서치의 SNS 분석 모듈인 <버즈 플라자 소셜 리스닝>을 통해 '코로나', '우한 폐렴', '중국 폐렴'의 키워드를 포함한 각종 뉴스, 뉴스레터, SNS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콘텐츠를 분석했다. 2월 18일 이전(3,516,204건)까지는 '코로나19'와 함께 '중국인', '중국', '우한' 등 중국을 타깃으로 한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었으나, 2월 18일 이후(6,941,231건)에는 '신천지'가 타깃인 콘텐츠가 증가했다. 2월 18일은 31번째 대구 신천지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던 날이다.

(단위 : %)

'코로나, 우한 폐렴, 중국 폐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멘션(mention) 가운데 중국/신천지 타깃 집단이 포함된 멘션 비율 변화(RT포함)

mention	시기	비율	변화
중국/우한/중국인	1/1~2/17	21.8	-17.0
	2/18~3/17	4.8	
신천지	1/1~2/17	0.0	+8.2
	2/18~3/17	8.2	
확진	1/1~2/17	7.4	+5.2
	2/18~3/17	12.6	

비고: 멘션(mention)의 비율은 특정 단어(코로나/우한 폐렴/중국 폐렴) 키워드가 포함된 전체 mention에서 위의 대상이 포함된 비율로 산출함

출처: 한국리서치 Buzz Plaza Social Listening Module(1월1일~2월 17일 3,516,204건, 2월18일~3월17일 6,941,231건 분석 결과)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현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분노와 비난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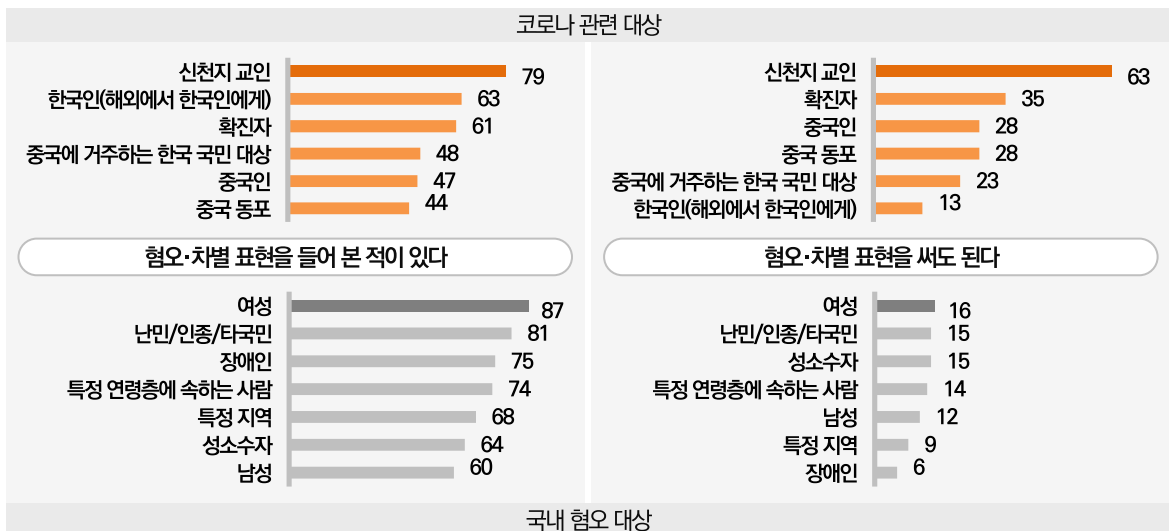
코로나 관련 혐오 표현 다수가 경험, 코로나 혐오 옳지 않지만 신천지는 예외 코로나 확산의 책임에 분노, 혐오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

2월 28일 ~ 3월 2일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코로나 관련 집단에 대한 혐오나 차별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신천지 교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9%, '국내 확진자' 대상으로 한 혐오를 들어봤다는 응답이 62%로 코로나 관련 혐오의 표현은 주로 신천지 교인과 국내 확진자에게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혐오 표현 경험은 국내 '여성'에 대한 혐오 경험(87%), '난민/타인종/타국민'에 대한 혐오 경험(81%)에는 못 미치지만 '장애인' 혐오(75%), '특정 연령'(74%), '특정지역'(68%), '성소수자'(74%), '남성' 혐오(60%) 경험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중국 연구 집단에 대한 혐오 체험 빈도는 신천지 교인이나 국내 확진자 수준에 못 미쳤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 48%, '중국인'에 대해 46%, '중국교포'에 대해서는 44% 수준에 그쳤다.

각 대상별 혐오표현에 얼마나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집단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적 연사를 정당화하는 응답이 높았다. 국내 소수자나 약자들에 대해서 용인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6~16% 수준에 그쳤고, 중국과 연관된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높기는 했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확진자 35%, 중국인/중국동포 28%, 중국 거주 한국인 23%).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므로 혐오 표현을 써도 된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었다.

코로나 관련 혐오표현 다수가 경험, 코로나 혐오 옳지 않지만 신천지는 예외

(단위 : %)



질문: 귀하께서는 다음 대상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비고: '들어본 적 있다' 응답만 제시

표본 수: 1,000명

조사시기: 2020.02.28~03.02

질문: 귀하께서는 이러한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한 표현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 응답만 제시

표본 수: 1,000명

조사시기: 2020.02.28~0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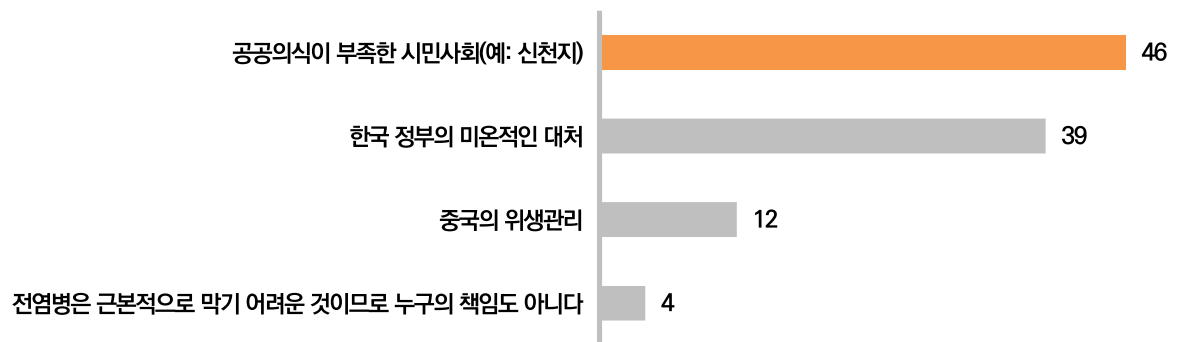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현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분노와 비난의 대상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던 1월에는 '중국인 포비아'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중국인과 중국 동포,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에 대한 경계도 매우 심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중국인'과 같은 특정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은 윤리적으로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신천지 교인에 대한 혐오·차별에 관대해지는 것은 사태 확산의 책임에 대한 분노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한국 내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신천지'와 같은 공공의식이 부족한 시민사회에 있다는 응답이(46%) 정부 책임론(39%), 중국의 위생관리 책임론(12%)을 넘어섰다. 특히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 내에서의 집단 감염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5%에 달해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신천지'에게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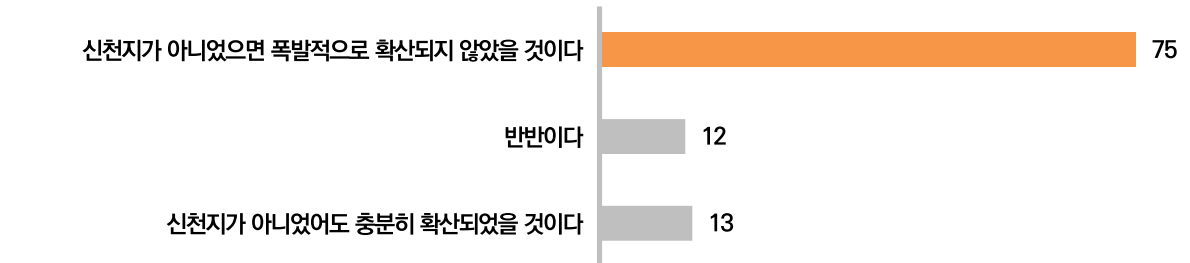
(단위 : %)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책임, 신천지 때문 46%



질문: 코로나19의 한국 내 확산과 관련해, 다음 중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75%, 신천지가 아니었으면 폭발적 확산 안 됐을 것



질문: 귀하께서는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가 아니어도 코로나19가 충분히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로 인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5점 척도(① + ② 신천지가 아니어도 충분히 확산되었을 것이다, ③ 반반이다, ④ + ⑤ 신천지가 아니었으면 폭발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표본 수: 1,000명

조사시기: 2020.02.28~03.0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현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분노와 비난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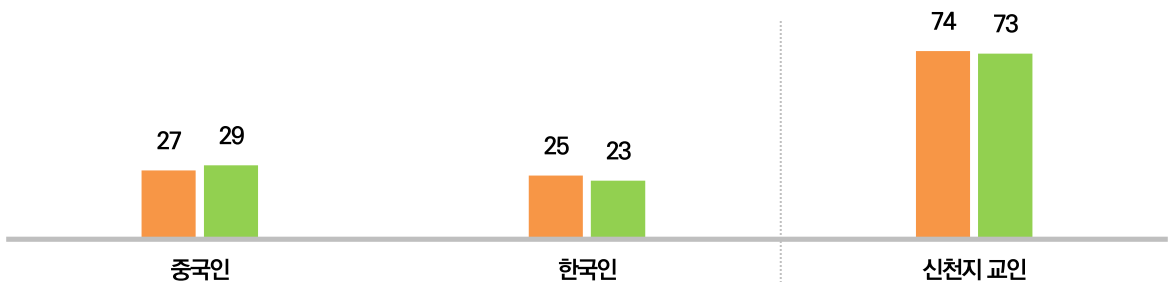
신천지 교인과의 접촉 우려 심각, 중국인의 사회 격리엔 반대하나 입국금지엔 찬성

신천지 교인과 중국 관련 집단에 대한 인식 차이는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적 접촉에 대한 태도 차이로 이어진다. 신천지 교인과의 일상생활에서의 접촉에 대해서는 우려가 심각하다. 식당 등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어 행동이라는 응답은 74%, 유치원/학교 등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비율이 73%에 달했다. 반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식당, 카페 등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국인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방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은 27%, 29%에 그쳤는데, 이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이 같은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응답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다(각각 25%, 23%).

(단위 : %)

일상생활에서 신천지 교인과의 접촉에 대한 우려 심각

- 식당, 카페 등에 000 출입금지를 써붙이거나 000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 00 국적, 또는 00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질문: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다음 각 내용이 개인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합리적인 방어/행동이다, 합리적인 방어/행동이 될 수 없다고 구성함. 그래프에는 '합리적인 방어/행동이다'만 제시

표본 수: 1,000명

조사시기: 2020.02.28~0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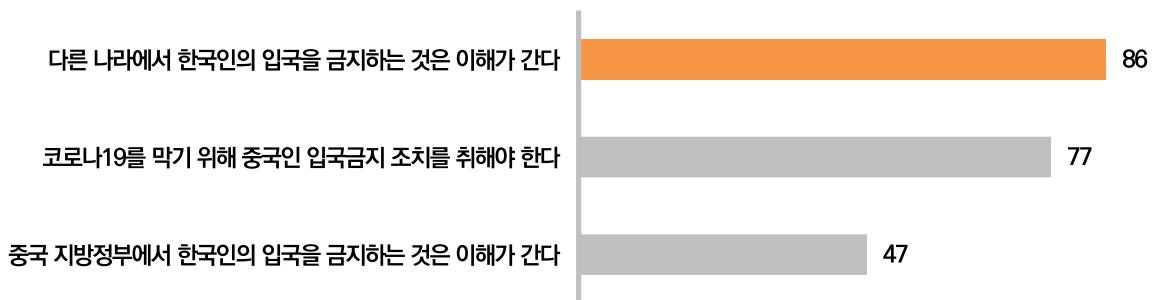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현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분노와 비난의 대상

그러나 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비율은 77%나 된다. 한국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엔 반대하지만,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 정서는 단순한 혐오 감정으로 보기 어렵다. '해외 다른 나라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비율도 86%를 넘어섰다.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선호인 셈이다. 반면, '중국 지방정부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47%, 공감하지 않는다 53%로 찬반이 엇갈렸다.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보여준 우호적 조치들에 대한 상호주의를 기대하는 정서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입국 제한,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 아닌 보편적 선호



질문: 코로나19와 관련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시요.

비고: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그래프에는 그렇다(③ 그런 편이다+④ 매우 그렇다)만 제시

표본 수: 1,000명

조사시기: 2020.02.28~03.0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19년 12월 기준 약 46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484명, 조사참여 1,245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4%, 참여대비 80.3%)
조사일시	• 2020년 2월 28일 ~ 3월 2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